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수연<sup>1</sup>, 신용순<sup>2\*</sup>

<sup>1</sup>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sup>2</sup>한양대학교 간호학부

### Factors Influencing Adapta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Soo Yeon Kim<sup>1</sup>, Yong Soon Shin<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up>2</sup>College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018년 4월 26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간호대학생 180명에게 전환충격(17문항), 사회적지지(24문항), 임상 실습준비도(2문항), 임상실습 적응(14문항)으로 구성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18.0을 이용해 빈도와 백분율,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적응은 전환충격( $r=-.55$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의 친구영역( $r=.24$ ), 부모영역( $r=.32$ ), 교수영역( $r=.38$ ), 임상실습 준비( $r=.35$ )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환충격이 작아질수록( $B=-.409$ ), 임상실습 준비도( $B=.766$ )와 교수의 지지( $B=.228$ ), 부모의 지지( $B=.163$ )이 커질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충격, 임상실습 준비도, 교수의 지지 순으로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실습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습 준비나 교수의 지지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students'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Data was collected from 180 nursing students between April 26 and May 4, 2018. A self-reporting questionnaire was employed, which comprised of 17 questions regarding transition shock, 24 questions about social support, two questions regarding the levels of preparedness for clinical practice, and 14 questions about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s well as by calculat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ubjects' degree of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ir transition shock. The degree of adaptati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levels of preparedness for clinical practice ( $r = 0.35$ ) and the sub-variables of social support in the domains of friends ( $r = 0.24$ ), parents ( $r = 0.32$ ), and professors ( $r = 0.38$ ). The smaller the transition shock ( $B = -0.409$ ) and the greater the levels of preparedness ( $B = 0.766$ ), professorial support ( $B = 0.228$ ), and parental support ( $B = 0.163$ ), the higher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Transition shock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felt by subjects, followed by their level of preparedness for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orial support. Hence, to increase the degree of adaptation to clinical practice, not only should individual nursing students be better prepared to conduct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ors provide greater support, but also there needs to be measures implemented to reduce transition shock.

**Keywords :** Adaptation, Clinical practicum,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practice gaps,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 : Yong Soon Shin(Hanyang Univ.)

Tel: +82-2-2220-0798 email: ysshin2k@hanyang.ac.kr

Received August 6, 2018

Revised August 16, 2018

Accepted September 7, 2018

Published September 30, 2018

## 1. 서 론

### 1.1 필요성

간호학 교육과정에서 임상실습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상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들이 실제 간호 업무 환경에서 실무에 참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1]. 학생들은 이 시기를 통해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 및 신념과 가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의 일부로 발달시키며[2] 간호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로 임상에 진입하게 된다.

최근 의료 환경은 과거에 비해 복잡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대상자의 증가로 높은 수준의 간호를 요구하게 됨에 따라[3] 교육 현장에서는 학사과정 중 1000시간 이상을 임상실습에 할당해[4] 임상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들의 기대와 달리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성취 정도는 실무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오랫동안 간호 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임상실습교육의 개선을 위한 연구로 임상수행능력이 주로 다루어져 왔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만족감, 임상실습환경, 교수 효율성 등 다양한 관련 요인이 제시되었다[6]. 임상수행능력은 학습 성과로 중요한 것이 틀림없으나 학생들의 임상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 요인을 밝히는 것 역시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임상실습 적응은 학생들이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과정으로[7] 추후 신규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 적응을 어떻게 해 나가는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간 임상실습 적응은 이론교육에서 임상으로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 감수성으로써 주로 현상학적 연구의 대상이었으며[7], 정량적 연구에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현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 수준을 알기 어렵고, 영향 요인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호대학생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간호사들의 적응은 전환충격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는데[8], 전환충격은 역할, 책임, 관계, 지식 등의 차원에서 겪는 의구심, 혼란, 혼동, 상실감 등으로[9] 이론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노출되었을 때 역시 경험할 수 있는 감정

이다[10]. 변화된 환경에서 대상자는 전환충격을 거친 후 가치관을 재평가하여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8] 전환충격이 크면 왜곡된 가치관으로 현실에 부적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나 개인의 준비 정도가 촉진 혹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어[11] 임상실습 시 사회적지지 정도, 핵심 간호술기의 숙련도나 이론적 사전 지식은 임상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 수준을 파악하고, 영향 요인으로 전환충격, 임상실습 준비도,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학습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 1.2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전환충격, 사회적지지, 임상실습 준비도, 임상실습 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전환충격, 사회적지지, 임상실습 준비도 및 임상실습 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5) 대상자의 전환충격, 사회적지지, 임상실습 준비도가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본 론

###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사회적지지, 임상실습 준비가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경기, 충남, 전남 지역에서 편의 추출된 4개의 대학에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선정기준으로는 임상실습에 2주 이상 경험이 있고, 현재 실습 중이거나 실

습을 마친지 1주 이내의 간호대학생으로 하였으며, 실습 장소가 보건소, 학교, 지역사회 센터, 정신과 병동인 경우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medium effect size 0.15, 검정력 0.9로 계산하였을 때 154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을 20%를 고려하여 최종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 도구

#### 2.3.1 전환충격

전환충격은 Kim 등[12]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신규 간호사가 임상에서 느끼는 의구심과 혼란, 혼동, 상실과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다. 업무의 압도, 간호전문직관의 혼란, 관계의 위축, 이론과 실제의 충돌, 사회적 지지의 상실, 개인생활과 일과의 부조화로 총 6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사용에 대한 원작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간호대학생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다. 간호대학교수 3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고, 간호대학생에 맞지 않다고 판단된 1 문항을 제외한 총 1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으며[12], 본 연구에서는 .87 이었다.

#### 2.3.2 임상실습 적응

임상실습적응은 간호대학생들이 병동의 환경에 적응하여 임상실습 기간 동안 간호대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점수로, Yi[13]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86 였으며[13], 본 연구에서는 .83으로 나타났다.

#### 2.3.3 사회적 지지

Han과 Yoo[14]가 개발한 사회적 지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지지 8문항, 친구지지 8문항, 교수지지 8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발 당시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친구 지지 .84, 가족 지지 .91, 교사 지지 .87 였으며[14],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친구 지지 .88, 가족 지지 .93, 교수 지지 .91 이었으며[15], 본 연구에서는 각 .90, .94, .85 였다.

#### 2.3.4 임상실습 준비도

임상실습 준비도는 핵심술기 숙련도와 이론적 사전지식에 대해 측정하였다. 핵심술기 숙련도는 '귀하의 핵심술기 숙련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1문항으로 1점 '매우 미흡'에서 10점 '매우 숙련됨'으로, 이론적 사전지식은 '실습 전 이론적으로 사전지식 준비가 잘 되었습니까?' 1문항으로 1점 '매우 미흡함'에서 10점 '매우 잘됨'으로 측정하였다.

###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H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승인(HYI-18-058-1) 후 시행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8년 4월 26일부터 2018년 5월 4일까지 시행되었다. 연구자가 각 대학을 방문하거나 연구 보조원을 통해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에게 동의서 취득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총 185부를 배포 후 모두 회수되었으며, 성실하게 답변되지 않은 5부를 제외한 18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 2.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측정변수에 대해 서술적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2) 측정 변수들 간의 차이,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3) 전환충격, 사회적 지지, 실습 준비도가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 3. 연구 결과

### 3.1 일반적 특성과 임상실습 적응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여성이 162명(90%)으로 대부분이었으며, 4학년이 147명(81.7%),

Table 1. Level of adapting of clinical practicu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80)

Variables	Categories	n (%)	M±SD	t or F (p)
Gender	Male	18(10.0)	46.89±7.07	1.24 (.22)
	Female	162(90.0)	44.70±7.12	
Grade	3rd	33(18.3)	44.64±6.11	0.25 (.80)
	4th	147(81.7)	44.99±7.35	
Type of dwelling	Commute from home	69(38.3)	44.03±8.48	70.92 (.24)
	Temporary residence	91(50.6)	45.97±6.05	
	Dormitory	10(5.6)	43.60±6.13	
	Others	10(5.6)	42.90±6.30	
Status of living together	with family	59(32.8)	43.32±8.89	77.05 (.21)
	Alone	72(40.0)	45.68±6.08	
	with friends	42(23.3)	45.86±5.42	
	Others	7(3.9)	45.50±9.38	
Practicum hospital type	General hospital	111(61.7)	44.00±7.29	2.23 (.03)
	Advanced general hospital	69(38.3)	46.41±6.65	
Hospital affiliated to University	Yes	20(11.1)	44.88±7.04	0.22 (.83)
	No	160(88.9)	45.25±8.00	
Number of instructing clinical practice on site	Once a week	126(70.0)	44.80±7.06	17.95 (.79)
	Twice a week	51(28.3)	45.10±7.33	
	Over three times a week	1(0.6)	42.00	
	Bimonthly	2(1.1)	49.50±10.61	
Hours of instructing clinical practice on site	< 0.5hours	12(6.7)	47.08±4.74	39.31 (.55)
	0.5hours ~ 1hour	19(10.6)	46.11±6.14	
	1-2hours	64(35.6)	43.89±8.63	
	2-3hours	68(37.8)	45.22±6.66	
	3hours over	17(9.4)	44.76±4.62	
Prior experience of hospital	Yes	114(63.3)	46.20±7.08	1.84 (.07)
	No	66(36.7)	44.18±7.08	

3학년이 33명(18.3%)이었다. 실습 시 거주 형태로는 ‘실습지 근처 임시거주’가 91명(50.6%)으로 가장 많았고 ‘통근’ 69명(38.3%), ‘기숙사’와 ‘기타’가 각 10명(5.6%)이었다. 동거여부는 ‘혼자 산다’가 72명(40%), ‘가족과 함께 산다’ 59명(32.8%), ‘친구와 함께 산다’ 42명(23.3%), ‘기타’ 7명(3.9%)이었다. 실습지는 소속 병원이 없는 경우가 160명(88.9%)로 대다수였으며, 실습 병원 유형으로는 2차 종합병원에서 111명(61.7%), 3차병원에서 69명(38.3%)가 실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지에서 실습지도 교수의 순회지도는 ‘2-3시간 사이’와 ‘1-2시간 사이’가 각 64명(35.6%), 68명(37.8%)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0.5-1시간’ 19명(10.6%), ‘3시간 초과’ 17명(9.4%), ‘0.5시간미만’ 12명(6.7%)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 실습 전 봉사활동, 아르바이트 등 병원에 대한 사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14명(63.3%)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적응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3.2 대상자의 전환충격, 사회적지지,

#### 임상실습준비도, 임상실습 적응 정도

대상자의 전환충격, 사회적 지지, 임상실습 준비, 임상실습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준비는 6.65±1.09점, 사회적 지지는 부모 영역 4.13±0.80, 친구영역 3.93±0.64점, 교수영역 3.10±0.68점, 임상실습 적응 3.21±0.51점, 전환충격은 2.45±0.43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al of variables (N=180)

Variables	Possible range	M±SD	item M±SD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2~20	13.30±2.18	6.65±1.09	
Social support	Friends	5~40	31.41±5.13	3.93±0.64
	Parents	5~40	33.03±6.38	4.13±0.80
	Professor	5~40	24.76±5.47	3.10±0.68
Transition shock	17~68	41.68±7.35	2.45±0.43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14~70	44.92±7.13	3.21±0.51	

3.3 전환충격, 사회적지지, 임상실습 준비도, 임상실습 적응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관련된 변수 간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임상실습 적응은 모든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 적응은 전환충격( $r=.55$ )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사회적 지지의 친구영역( $r=.24$ ), 부모영역( $r=.32$ ), 교수영역( $r=.38$ ), 임상실습 준비( $r=.35$ )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3.4 대상자의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상실습 준비, 사회적지지, 전환충격이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다중 공선성, 잔차, 이상값을 확인하였다. Durbin-Watson 통계량은 2.132( $du=1.83$ )로 자기 상관없이 독립적이며,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지수는 .748~.896으로 공차한계 1.0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144~1.336으로 모두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차분석은 Kolmogorov-Smirnov의 정규성 검정으로 시행하

였고,  $p = .102$ 로 .05보다 크게 나타나 정규성을 가정한다. 이상값을 확인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이상값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게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지지 중 친구의 지지 영역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를 제외시킨 축소모형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완전모형과 축소모형의 차이에 대해 Jaccard & Turrisi[16]의 방법으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완전모형과 축소모형에 대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F = 0.350, p > .05$ ) 친구의 지지 영역을 제외시키는 축소모형을 사용하였다. Table 4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 전환충격, 임상실습 준비도, 교수의 지지 순으로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충격은 임상실습 적응에 대해 30%의 설명력을 가지며, 임상실습 준비가 추가되어 7.4%p가 증가하여 37.4%를 설명하였다. 교수의 지지에서 3.9%p, 부모의 지지에서 1.9%p가 증가되어 전체 설명력은 41.9%로 나타났다. 전환충격이 작아질수록( $B = -.409, p < .001$ ), 임상실습 준비도( $B = .766, p < .001$ )와 교수의 지지( $B = .228, p < .01$ ), 부모의 지지( $B = .163, p < .05$ )가 커질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social support, transition shock and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N=180)

Variables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Social support			Transition shock
		Friends	Parents	Professor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1				
Social support	Friends	0.26(<.001)	1		
	Parents	0.21(.002)	0.45(<.001)	1	
	Professor	0.12(.060)	0.25(<.001)	0.28(<.001)	1
Transition shock	-0.18(.009)	-0.10(.084)	-0.19(.006)	-0.31(<.001)	1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0.37(<.001)	0.24(.001)	0.32(.001)	0.38(<.001)	-0.55(<.001)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N=180)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Step 4	
	B	$\beta$	B	$\beta$	B	$\beta$	B	$\beta$
Constants	67.066		52.981		44.622		40.769	
Transition shock	-.531	-.548***	-.481	-.496***	-.422	-.435***	-.409	-.422***
Clinical practicum preparation			.903	.276***	.839	.257***	.766	.234***
Social support	Professor				.272	.208***	.228	.175**
	Parents						.163	.146*
R <sup>2</sup> ( $\Delta R^2$ )	.300		.374(.074)		.413(.039)		.432(.019)	
F	76.304***		52.814***		41.213***		33.211***	

\*  $p < .05$  \*\*  $p < .01$  \*\*\*  $p < .001$

####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사회적 지지, 임상실습 준비가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은 2.45점으로, 간호대학생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연구는 없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의 연구에서 전환충격이 2.70점[12], Sin 등의 연구에서 2.66점[17]으로 보고되어 간호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실습 업무나 책임이 간호사에 비해 제한적일지라도 간호대학생 역시 간호사만큼의 전환충격을 경험하게 되므로, 실습 지도자는 이를 인지하고 간호대학생이 실습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 지지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사회적 지지는 ‘교수의 지지’ 영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Noh[1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Yang[18]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 중 ‘교수의 지지’만이 임상 실습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임상 실습에서 교수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지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습지도 교수의 순회지도가 적절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겠으며, 학생들이 학교와 분리된 낯선 환경에 놓이게 된 만큼 주 2~3회의 순회지도 시간 외에도 각자의 역할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해야겠다. 또한, 실습지도 교수는 임상 실습에서 지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전문적인 지식 및 능력, 원조자로서의 역할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요인들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19, 20] 교수 역할의 중요성을 뒷받침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로써 교수 영역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지나 격려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교수 효용성을 파악하고, 임상실습 적응과의 영향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준비도는 10점 중 6.65점으로, 핵심 기본 간호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실무기술에 대해 5점 중 3.75점을 나타낸 선행 연구[21]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실습 준비도는 수행에 대한 자신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실습에 대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자신감을 느껴 임상실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22]. 다만, 본 연구에서 사전지식 정도나 핵심술기는 자가 평가만으로 측정되었으며, 일부 연구에서 이러한 측정결과는 실제 성취도와 관련성이 낮다는 보고가 있어[23], 추후 연구에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교수나 동료에 의한 평가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상관관계 분석에서 전환충격, 사회적 지지, 임상실습 준비도는 임상실습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전환충격이 작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임상실습 준비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환충격이 조직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24], 전환기에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변화된 역할 적응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25]. 또한 개인의 준비와 적응과의 관련성은 실습지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있을 때 쉽게 적응하는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26].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전환충격, 임상실습 준비도, 교수의 지지, 부모의 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41.6%였다.

임상실습 적응에 가장 큰 설명력을 보인 전환충격은 적응의 결과 변수인 소진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2], 본 연구에서는 실습 적응 정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여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적응을 높이기 위해 전환충격 중재 방안을 적용해 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간호대학생의 전환 충격 수준을 일반화할 만한 연구가 없었고, 전환충격이 유지되는 기간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진 바 없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신규 간호사의 전환충격이 8-12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27], 간호대학생 역시 첫 학기뿐만 아니라 실습기간 전반에 걸쳐 전환충격이 지속될 것으로 추측 되는 바 추후 중단적 연구를 통해 전환충격에 대한 추적 관찰 기준을 마련하고, 중재의 적용 시점을 논의해야겠다.

다음으로 임상실습 준비도가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는데, 임상실습이 잘 준비 될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일 연구에서 실습 중 핵심간호술기를 경험하는 횟수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28], 직접 간호를 수행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는 경

우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 대상자를 통해 검증해보는 것은 학생들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 준비도 역시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이론 및 핵심간호술기에 대한 준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실습에 임하여 더 많은 핵심간호술기를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결과적으로 높은 임상수행능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습 기간 중 적극적인 실습 태도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철저한 임상실습 준비가 이루어져야겠다.

사회적 지지에서는 부모의 지지와 교수의 지지가 임상실습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간호대학생에게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여러 연구를 통해 검증되고 있다[15, 18, 20, 29]. 이 중 Park과 Han[20]의 연구에서 가족의 지지와 교수 효율성이 높으면 실습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특히 가족의 지지 보다 교수의 효율성이 실습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 적응에 교수의 지지가 부모의 지지보다 높은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임상실습에서는 가족의 지지 보다 실습지도 교수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임상실습 지도 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역할 모델로써 기능하도록 해야 하며, 지지와 격려도 매우 중요함을 인지하도록 해야겠다. 한편 친구의 지지 영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임상실습 적응에 동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상이하여[26]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임상실습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준비도, 사회적 지지 중 교수의 지지, 부모의 지지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적응과 전환충격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임상실습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준비도, 교수의 지지, 부모의 지지가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밝혀져 이를 활용하여 임상실습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환충격, 사회적 지지, 임상실습 준비도가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전환충격이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와 임상실습 준비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적응이 높게 나타났다.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준비도, 교수와 부모의 지지가 임상실습 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어진 변수 외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임상실습 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환충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전환충격과 임상실습 적응 관계에서 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한 종단적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S. V. Dunn, L. Ehrich, A. Mylonas, and B. C. Hansford, "Students' perceptions of field experience professional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9, no. 9, pp. 393-400, 2000.
- [2] E. Howkins and A. Ewens, "How students experience professional social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36, no. 1, pp. 41-49, 1999. DOI: [https://doi.org/10.1016/S0020-7489\(98\)00055-8](https://doi.org/10.1016/S0020-7489(98)00055-8)
- [3] G. Sangestani and M. Khatiban, "Comparison of problem-based learning and lecture-based learning in midwifery," *Nurse education today*, vol. 33, no. 8, pp. 791-795, 2013.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2.03.010>
- [4]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Accreditation assessment standards for education of Korea(The course of nursing bachelor's degree)*. Korean Accreditation Board of Nursing, Seoul, 2014.
- [5] P. Burns and E. C. Poster, "Competency development in new registered nurse graduates: Closing the gap between education and practice,"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vol. 39, no. 2, pp. 67-73, 2008. DOI: <https://doi.org/10.3928/00220124-20080201-03>
- [6] M. Y. Jho, "An analysis of research on nursing practice educ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6, no. 2, pp. 239-248 201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2.239>
- [7] S. Y. Kang, "The social adjustment process of nursing students in the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vol. 1, no. 0, pp.

- 9-19, 2016.
- [8] M. Kramer, *Reality shock: Why nurses leave nursing*. pp. 891-893, Mosby St. Louis, MO, 1974.
- [9] J. E. Duchscher, "Transition shock: the initial stage of role adaptation for newly graduated registered nurs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65, no. 5, pp. 1103-1113, 2009.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98>
- [10] K. R. Shin,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8, no. 1, pp. 156-168, 1996.
- [11] S. Kumaran and M. Carney, "Role transition from student nurse to staff nurse: facilitating the transition period,"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4, no. 6, pp. 605-11, Nov 2014.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4.06.002>
- [12] E. Y. Kim, J. H. Yeo, and K. I. Yi, "Development of the Transition Shock Scale for newly graduated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7, no. 5, pp. 589-599, Oct 2017.  
DOI: <https://doi.org/10.4040/jkan.2017.47.5.589>
- [13] Y. J. Yi,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learning orient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dapting to clinical practicu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vol. 19, no. 4, pp. 593-602, 2007.
- [14] M. H. Han and A. J. Yoo, "The relation of stres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to problem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17, no. 1, pp. 173-188, 1996.
- [15] Y. G. Noh,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3, no. 5, 2017.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7.23.5.461>
- [16] J. Jaccard, R. Turrissi, and J. Jaccard, *Interaction effects in multiple regression* (no. 72). pp. 60-67, Sage, 2003.
- [17] K. M. Sin, J. O. Kwon, and E.-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new graduate nurses' reality shock,"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0, no. 3, pp. 292-301, 2014.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4.20.3.292>
- [18] Y. K. Yang, K. S. Han, M. H. Bae, and S. H. Yang, "Social support, academic stress, clinical practice stress in college student of nursing,"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 22, no. 1, pp. 23-33, 2014.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4.22.1.23>
- [19] J. Y. Han and H. S. Park, "Effects of teaching effectiveness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8, no. 3, pp. 365-372, 2011.
- [20] W. J. Park and J. Y. Han, "The effect of ego-resilience, stress coping styles, teaching, effectiveness, and family support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by AMOS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7, no. 3, pp. 365-375,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3.365>
- [21] S. O. Kim and B. H. Kang,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Experience, Recognition of Importance and Learning Self-efficacy for Core Fundamental Nursing Skills on their Self-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8, pp. 172-182,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8.172>
- [22] K. Casey, R. Fink, C. Jaynes, L. Campbell, P. Cook, and V. Wilson, "Readiness for practice: the senior practicum experienc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50, no. 11, pp. 646-52, Nov 2011.  
DOI: <https://doi.org/10.3928/01484834-20110817-03>
- [23] E. J. Kim, "The Relationships among Learning Motivation, Perceived Achievement, and Actual Achievement on Nursing Skill Performance Assessmen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3, no. 1, pp. 48-56, 2017.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7.23.1.48>
- [24] J. P. Wanous, T. D. Poland, S. L. Premack, and K. S. Davis, "The effects of met expectations on newcomer attitudes and behaviors: A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77, no. 3, p. 288, 1992.
- [25] I. Brissette, M. F. Scheier, and C. S. Carver, "The role of optimism in social network development, coping,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2, no. 1, p. 102, 2002.
- [26] C. E. Houghton, "Newcomer adaptation: a len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how nursing students fit in with the real world of practic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vol. 23, no. 15-16, pp. 2367-2375, 2014.  
DOI: <https://doi.org/10.1111/jocn.12451>
- [27] M. Krammer and C. Schmalenberg, "Dreams and reality: where do the meet,"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 no. 6, pp. 35-43, 1976.
- [28] D. W. Choi,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experiences on the essential of fundamental nursing skills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2, pp. 184-191, 2014.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2.184>
- [29] W. H. Jun, M. J. Jo, and H. Na,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social supports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3, pp. 219-228, 2015.  
DOI: <https://doi.org/10.5392/JKCA.2015.15.03.219>



김 수 연(Soo Yeon Kim)

[정회원]



- 2017년 2월 : 한양대학교 박사수료
- 2017년 3월 ~ 현재 : 나사렛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임상실습교육

---

신 용 순(Yong Soon Shin)

[정회원]



- 2005년 3월 ~ 2011년 2월 : 울산대학교 산업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 겸임간호교수
- 2012년 3월 ~ 2014년 2월 : 국립장원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간호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학